

2024 아가페 축제: Let's Spread the Love Vibe



09.30~10.02 학생회관, 풍산마당
주최 -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아가페축제 저녁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아가페축제 저녁예배가 10월 1일 화요일 6시 반에 풍산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저녁예배 말씀은 서창희 목사님(한사랑교회)이 담당한다.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이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류제경
- 2면 아가페 축제 준비비 소감 ... 이다은/고성현/고재연/이윤성
- 3면 진나빛 30주년 기념글 ... 임현우/이경진
북해도 비전트립 프롤로그 ... 장동원
- 4면 샛포로 비전트립 에필로그 ... 문예은
- 5면 전공에서 만난 하나님 ... 김성현 / 이지석
- 6면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후기 ... 김선우
선교단체 수양회 후기 ... 유진솔 / 표진주
- 7면 그들 기독 토크콘서트 후기 ... 서육희
서기연 저작번 엠티 ... 조진호
서기연 홈커밍데이 ... 최하영
- 8면 종강예배 사진
대학촌선교센터 그들 소개 ... 서육희
대학촌교회 청년부 소개 ... 권세희

교수칼럼

공부/연구가 예배가 되게 하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길



제가 과학자의 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2년 제주 과학고에 진학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학교 시험에서 큰 좌절을 경험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성적과 입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동기부여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하여 꾸준히 공

부를 이어갔지만, 공부와 연구는 저에게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였을 뿐, 더 큰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정과 상관없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는 막연한 비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스로에게 공부와 연구를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장애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늘 잘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원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을 채찍질하며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했지만, 심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할 힘이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방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연구실 대신 캠퍼스 잔디밭으로 출근하며 인생을 한탄하는 시간을 1-2년간 보냈습니다. 지도교수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지만,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바꾸는 방법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면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채찍질은 오히려 우울증을 악화시켰고, 삶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질문은 "내 인생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저는 상담 센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구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고,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일시적인 위로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반주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 가족과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깊은 임재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시며 치유 사역을 훈련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다녔었지만, 이번에는 10명 남짓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거의 없어서 가족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해결책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더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제 생각의 패턴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제 삶에서 말씀이 얼마나 피상적이었으며, 삶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때 결심한 것은 나의 생각과 삶을 모두 말씀으로 조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 삶이 하나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특히 연구라는

주제를 말씀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구를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진정한 연구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청년으로서 우리는 자주 예배와 일상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특히 우리의 공부와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공부와 연구가 단순히 세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한 은사와 재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또 다른 사람은 예술이나 사회 과학, 인문학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공부를 단순히 성적이나 졸업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의 연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됩니다. 공부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연구를 예배로 삼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학업에 임할 때 단순히 과제를 끝내기 위해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대비할 때도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도 결과보다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의 학문적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며,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공부와 연구를 예배로 삼는 세 번째 방법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늘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학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논문을 쓸 때도, 실험을 할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이러한 동행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어려운 연구 과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노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에 직접적인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좌절을 이겨낼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와 연구를 예배로 삼을 때, 이는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 공동체와의 연대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나 캠퍼스 내 기독교 모임에서 서로의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학문적 여정이 단지 개인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학업과 연구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태도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학문적 관심을 나누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공부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학업은 진정한 예배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부와 연구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고 말합니다. 우리의 학업 성취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일 때,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열매가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학문적 활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의료 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학생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 예배의 삶을 향하여, 공부와 연구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며, 삶의 열매를 통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학문적 활동은 단순한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기독교 청년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부와 연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류제경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기에 축제 준비팀 소감

안녕하세요. 아가페 축제의 행정팀장을 맡았던 이다은(영문 21)입니다. 처음 아가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작년 11월, 아가페축제 TF팀을 처음 꾸렸던 것이 올해 4월이었는데 글을 쓰는 지금 벌써 축제가 한 달 정도 남은 8월이네요. 진짜로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구나 라는 실감이 하루하루 커져가는 요즈음입니다.

전 서기연 중앙위로서, 현 서기연 대표로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왔지만 아가페 축제처럼 대의원들, 즉 서기연의 선교단체들이 먼저 원했던 사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의원들의 의견과 모습들을 통해 이 축제를 진행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이후에 확실하게 필요한 연락들을 시작하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대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가페 축제를 준비하는 몇 달간 일관되게 기도한 제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사가 되도록, 두 번째는 아가페 축제의 준비부터 전 과정을 통해서 서기연 안에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연합할 수 있기를, 세 번째는 아가페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캠퍼스로 흘러갈 수 있기를 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노력하였던 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할수록 이 행사의 완성도나, 행사의 성공 여부에 눈을 돌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 우리의

욕심으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축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 축제 준비과정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시는 복음의 복음됨은 하나님께서 이 축제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가페 축제를 설명하고 소개할 때에 가장 많이 들리는 주변인들의 반응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사역이다"입니다. 특히 졸업하신 서기연 선배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낯설고, 서툴고, 어색합니다. 행정팀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러한 미숙함이 행어나 축제 준비에 걸림돌이 될까 큰 부담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색함까지 기쁘게 다가옵니다. 그 새로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아가페 축제에 TF팀이나 준비팀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아가페 축제의 진행사항을 멀리서 들으며 응원해주시는 분들, 당일에 축제에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다은(영어영문학과 21)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페축제 홍보팀으로 섬기고 있는 고성현입니다. 올해 5월부터 홍보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최성호 형제와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어요. 디자인 쪽으로 은사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디자인을 비롯해 많은 업무를 도맡아서 해준 최성호 형제와 함께 일할 수 있어 감사했어요. 성호 형제는 이번 사역을 위해 전문 프로그램도 구독할 정도로 열정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감탄했습니다. 성호 형제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서기연 중앙위로서 활동하며 긴밀하게 다리역할도 해주었기 때문에 홍보팀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이 비슷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기반으로 시작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고, 경

험했던 일까지 비슷해서 공통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P인 성향도 비슷했는데 다행히 성호 형제가 저보다 J에 가까워서 회의가 매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을 결과물이라고 하면 포스터와 나눔우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두리가 동글동글한 포스터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었는데, 보다보니 글씨체에 스며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비판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웃음). 롯데리아 칩떡볶이라는 글씨체를 처음 알았는데, 원래 알고 있던 성호 형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눔우산도 성호 형제의 아이디어였어요. 나눔우산은 아가페축제가 지닌 '사랑을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우산과 우산꽂이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대여하고 반납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반납을 해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웃음),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가진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해요. 학생회관, 사회대, 301동 등 교내 몇 군데에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성현(정치학과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아가페 축제 TF팀에서 부스팀, 그 중에서도 먹거리부스를 담당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22학번 고재언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축제를 신나게 즐기셨으려나요. 사실 저는 조금 얼떨떨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여름방학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는 아직 개강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축제까지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 TF팀으로 뽑힌 4월 중순 만해도 중강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아가페 축제 준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게 특기인 저로서는 처음 차려보는 밥상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이 앞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겁쟁이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TF팀으로서 축제 준비에 가담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TF팀의 다른 팀원분들은 저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부스팀, 그중에서도 가장 쉬운 먹거리부스를 배정받았습

니다.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준비도 나름 수월하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 떠나지 않는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것은 철저한 준비도, 든든한 팀원들도 그 무엇보다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상하거나 소망한 방향이 아닐지라도요.

이번 방학에 사무엘상하를 읽으며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부터 사울에게 쫓기며 왕위에 오른 뒤 범죄하기까지, 다윗의 삶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 자신이 한 것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캠퍼스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와 서기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고재언(자유전공학부 22)

안녕하세요. 아가페 축제 저녁팀의 이윤성입니다. 저녁팀은 서울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와 기독교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익숙한 단체가 아닌, 연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섬김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 여러 선택 앞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모두 쉽지 않았습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아가페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캠퍼스 구성원들이 변화되고 위로받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기다림과 거절의 연속이었고, 저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쉽게 지치는 마음은 지금까지 이어지

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붙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대처 능력을 풀어주고 먼저 마음을 열어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준비팀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이 아가페 축제를 찾아온 이들에게도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기대되지 않는, 기대하기 싫은 앞날에 실망할 때가 있지만 앞서 아시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캠퍼스 곳곳을 살피는 노력이 계속되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윤성(지구환경과학부 19)

진나빛 30주년 기념글

진리는 나의 빛 30주년을 축하하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칠천 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호렙산을 내려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관악산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진나빛은 지난 30년간 '칠천'의 존재를 증언했습니다. 진나빛은 캠퍼스에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매체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진나빛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매체에 맞는 다양한 공유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

어집입니다. 진나빛이 전하는 위로가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길 기대합니다. 각 기독교인 그룹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데 진나빛이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면을 통해 공유되고, 더 많은 이들을 그 일에 참여하길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진나빛이 한국교회를 위로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도 많고, 낙심한 자들도 많습니다. 에스겔이 목격하였듯,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학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칠천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진나빛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대학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지만, 오직 나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진나빛은 캠퍼스 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들을 후원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신문입니다. 진나빛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임을 기억하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임현우(대학총교회 담임목사, 전 진나빛 기자)

진나빛 제30주년을 축하하며



진나빛 제100호 및 제25주년을 맞아 기념문집을 준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그새 5년의 시간이 흘렀다니 감회가 새롭다. 30년은 흔히 한 세대를 세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 단위이다.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진나빛은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 왔을까? 또 진나빛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미래를 향한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할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나빛이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독하는 매체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아는 자들"의 계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한다(수 24:31; 사 2:7).

진나빛은 오래고 새로운 캠퍼스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풍성한 곳간처럼 담아 모아 왔다(마 13:52). 진나빛은 당대 캠퍼스 기독교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역사를 받아 쓰고, 한 세대에 걸쳐 역사를 이어 쓰며, 그 모든 부침(浮沈)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덮어 썼다. 그렇기에 '진리는 나의 빛'은 학교의 표어이자 신문의 이름이면서도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곧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르라는 이 세상 풍조를(엡 2:2) 단호히 거부하고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려는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순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진나빛과 함께 하시며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실 것을 소망케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나빛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서울대 기독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

님 자신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신 이야기들이다. 험한 인생 길을 보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호 12:4), 진나빛을 통해 그간 우리 전 세대들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꼭 같다고 하겠다. 진나빛 제100호 기념문집에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 모쪼록 편집부를 통해 책을 얻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한다.

필자는 13년 동안 몸담았던 서울대학교를 떠나 미국을 거쳐 싱가포르에 살게 되었다. 여전히 캠퍼스 안에서 예배하거나 또 캠퍼스 근처의 교회들을 다니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그리우면서도 그리움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진나빛 섬김이로서의 정체성이다. 개·종강예배 때마다 발간되는 진나빛은 서울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왔다. 몇 번의 휴간과 복간을 거쳐,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존재했다(롬 10:15). 그 빛이 어디에나 비추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특별하다는 점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진나빛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체력과 감정을 드러 섬기고 헌신한 분들을 하나님이 알아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들로서 갚아주시기를 구한다. 때로는 힘에 겨워 낙담하고 멋진 성취를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저 이곳에서 존재하며 하루를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생명의 빛을 내고 있는 반딧불이 같은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해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지금 이때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진나빛을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부르며(삼상 7:12), 앞으로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 진나빛의 30주년을 마음을 다해 축하한다.

이경건(화학교육 11, 난양이공대학 교수, 전 진나빛 편집인)

북해도 비전트립 프롤로그



북해도는 원래 아이누라는 북방 민족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해도와 쿠릴, 사할린 등에 퍼져 분포했는데, 주로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했습니다. 일본은 본토의 인구 증가를 해결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공간을 내몰며 섬 전체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일본은 북해도척식

은행을 세우고, 일본 본토인들에게 땅을 팔고, 광산을 채굴했습니다. 한국사와 비슷하게 들렸다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북해도는 일본이지만, 동시에 식민지였습니다. 심지어 이 북해도의 광산에선 우리 한국인 징용 노동자들이 다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해도로 이주한 일본인들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땅을 분양 받아 조선에서 지주로 군림하고자 했던 우리의 사례와

달리, 북해도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소작농과 같이 북해도에 가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해도는 일본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일본의 개항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무역이나 고래잡이 과정에서 안전한 항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경선이 기착하기 위한 항구로 개항된 곳이 북해도 남쪽의 하코다테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들이 도착하며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해도는 가난한 이들의 도망 온 땅이며 열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해도의 기독교인 비율은 일본 타지역보다 소폭 높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부활절 달걀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은 1% 내외입니다. 북해도도 3% 정도입니다. 이런 모순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국가에서 기독교가 종교나 세력으로 이해된다면, 일본에서 기독교는 스타일로 이해됩니다. 대부분은 기독교 문화의 특정 부분을, 서양의 멋진 스타일의 일부로 즐기기를 원할 뿐,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인의 결혼식입니다. 80년대 버블경제 전후로 교회 결혼이라는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이 문화는

기독교 영향력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대표되는 서양식으로 식을 올리고 싶다는 허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외에 가면 서양 교회의 모습을 하고 사제 의상을 입은 사회자가 있는 결혼식장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한 종교를 진지하게 믿지 않는 일본인의 종교관과 외래문화를 자기 식으로 변용하는 문화 코드가 작동한 것입니다.

일본 문화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식도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글이 아닌, 서구 문화의 한 모티프로 격하게 기독교를 수용하고 활용했습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다자이 오사무 등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은 성경 속 이야기를 소재로 글을 썼지만, 서구풍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자신의 문학적 기교와 기발한 생각을 드러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오만 없이 등장한 소중한 작가가 있으니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글쓰기를 전 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깊이 있는 신학 연구에 몸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건강에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글을 읽고 쓸 시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소설은 예전만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자극적인 일본 소설들이 자유롭게 번역·유통되고 있기에 굳이 손이 가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작품에 있는 자극적인 점이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불륜, 가정폭력, 의심, 취객, 방탕 등의 주제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다보니 “과연 이걸 기독교 문학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뇌리를 스칠 겁니다. 그렇지만,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은 그 질문을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주제는 사랑으로 하는 용서이며, 그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많은 안 좋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시기, 질투, 증오, 탐

욕, 폭력 등등. 이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를 나와 다른 세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외려 돌아오려는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 없는 큰 아들에 주목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그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는 자로 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도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이라고요. 미우라 아야코 소설 속에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작은 아들과 편안하게 공감하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쉬운 공감을 넘어서서, 높은 곳에서 내려보듯 읽어봅시다. 그렇게 읽어볼 때,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단서가 자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녀의 소설이 일본 문학 가운데 처한 위치처럼, 기독교인으로 일본 사회를 살아온 그녀의 삶도 선풍적 인기 보단 조용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세상을 겪은 그녀는 우리에게 문학을 통해 사랑, 용서로 이 세상을 대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유혹 많은 이 세상을 넘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는 방법인 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의 복해도 비전트립과 독서가 이런 길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축복합니다.

장동원(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삿포로 비전트립 에필로그

어쩌다 삿포로로

안녕하세요, 산림과학부 21학번 문예은입니다. 2024년 삿포로에서의 비전트립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요르단으로 비전트립을 계획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삿포로로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 왜 삿포로였는가?



저희 팀은 요르단으로 비전트립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국 1주일 전, 요르단 인근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르단의 입국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히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삿포로로 비전트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트립을 준비할 때 현지 팀과의 조율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단 3일 만에 1주일치 일정을 급히 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르단을 통해 주님이 주시려는 비전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삿포로로의 변경에 대해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의 8월 15일은 명절로, 교회가 문을 닫아 사역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여, 여행을 먼저 하고 사역을 이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트립 대신 트립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선교할 생각하지 마라. 삿포로에 온 첫날, 이송태 선교사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작은 일본 교회에선 아이들을 초청해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일어서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팀원들이 모두 앉아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토요일에는 남승호 교수님이 설교를 맡았고, 문지명 형제는 간증을 하였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꽃들도’ 특송을 하였습니다. 예배 후, 한 성도께서는 집에 있는 불상을 처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 방문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일에는 삿포로복음자유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으며,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양의 언덕, 클라크 박사 기념관, 그리고 모리산의 야경을 감상하며 일본의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법학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기무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0여년전까지 야쿠자에 몸담으신 분이었고, 목사가 된 이후 20년간 스키노 흥등가에서 월요일마다 성 산업 종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간대가 맞아, 저희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각색의 옷을 입은 여자분들이 거리에 나와 비를 맞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목사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스무고개를 하셨습니다. 야쿠자 스타일의 올블랙에 검은 구두, 올백머리까지 하셔서 그런지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뭔가 전

직 야쿠자라고 하면 과거를 감추기 급급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통해 그 업계의 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모습은 무척 신선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성을 이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진정한 평안을 가지시길 기도했습니다.

3. 일본 선교의 도전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를 일본의 문화와 민족성에서 꼽자면, 첫째는 和(평화로울 화)정신입니다. 일본인들은 친절이 몸에 밴 이상, 기독교를 전할 때 걸으로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에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기 어려워합니다. 채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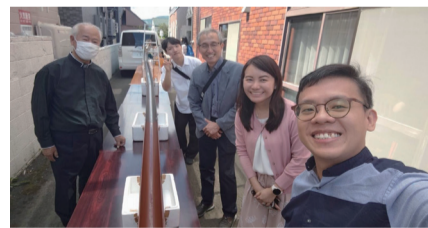
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특성은 ‘다신관’입니다. 세상 모든 게 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쌀 한 알이 만들어지려면 바람, 비, 땅, 해의 신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밥을 남기는 건 쌀을 만든 신들을 경시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은 그들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일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고, 삶의 구주임을 믿는 건 아닐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 네가 믿는 신 꽤 좋아보이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정도 느낌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신토이즘이 뿌리내린 집안의 경우 기독교를 믿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집안에서 내쫓는(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경우도 비밀비재합니다. 일본인들은 타인, 특히 가족의 화목함(다시금 ‘화’네요)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결신하기까지 참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네가 믿고 있는 토착신앙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치는 맛과 냄새 모두 이상한데 왜 먹느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보통은 네가 김치에 대해 뭘 알길래 그렇게 말하냐 기분 상하겠지요. 일본인들에게 유일신을 초면에 강권하는 건 김치를 모욕하는 것 800만 배 이상으로 무례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날이었습니다.

4. 받은 사랑과 배운 것들

삿포로에서 저희는 많은 사랑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국현 선교사님 내외께서는 저희를 위해 귀국 선물로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 주셨고, 유마 협동간사님은 평일 저녁 늦게 저희와 합류하여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삿포로복음자유교회 담임목사님은 저희가 오는 일요일에 맞춰 수제 국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헌신하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환대는 저희가 한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사랑받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에서의 경험은 일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고, 저희 팀의 신앙과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통해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으며, 선교의 중요성과 사랑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 속에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예은(산림과학부 21)

전공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인기연 소속, 철학과 22학번 김성현입니다. 이번 진나빛에서 <전공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이 나갈 때가 되면 아쉽게도 저는 공군 훈련소에 있을텐데... (읍읍) 거두절미하고, 지난 학기 제가 가장 흥미롭게 수강했던 수업은 '서양중세철학'입니다. 아무래도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사상가들에게 기독교적 대전

제가 깔려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변증이 수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기연 학우님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걸까요?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선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걸까요? 중세 시대에는 흔히들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의 논증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악용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전제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유의지가 흔히들 생각하는 선(현명함, 절제와 같은 명백히 선한 덕

목들)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간선(상대적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악을 선과 대립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 개념이 아닌 '선의 결핍'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유의지를 통해 행한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빛과 어둠을 대립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처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빛이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왜 악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자유의지가 선하지 않게도 사용될 수 있다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선하게만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던 걸까요? 그는 선은, 자유의지로 선택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선을 일방적으로 제공받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의지로 최고선에 합치되는 올바른 행위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최고선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격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 논변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행착오를 허락하시는 것은,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를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선한 성취에 이를 때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유'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도 자주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입니다.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기준의 원천은 무엇인지가 흔히 논의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인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책임 있는 자유가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중세 시대에는 객관적 가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여겼던 시대였고, 그는 이성 위에 진리(객관적 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진리의 기원은 하나님 말고는 가능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결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근대 시대에는 니체와 같은 사상가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등장하였고,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20세기에는 객관적인 가치조차 부정해 버리는(특히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객관적 가치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자유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 사조가 개개인에게 녹아든 결과,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함과 더불어 LGBTQ와 같은 성 혁명 혹은 성매매와 같은 문란함, 마약 중독 등 성경을 전면적으로 대척하는 사회상을 낳았고 이는 책임 없는 자유, 무신론적 자유주의가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무신론적 자유가 아닌, 책임 있는 자유에 기반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일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현(철학과 22)

수리과학부와 컴퓨터공학부에서 만난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9)

저는 수리과학부 주전공에 컴퓨터공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학부 4학년 이지석입니다. 수학이랑 컴퓨터 수업들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난 저의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공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부터 증명합니다.

증명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내 전공을 공부하러 간다.
⇒ 하나님은 내 전공 공부에서 나와 함께하신다.



저는 이 증명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만날 수 있다"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자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처럼 상태를 공유한다고 그것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옆칸의 사람과 아주 가까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분을 만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화장실 칸막이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고, 부끄러움과 혐오감처럼 볼 수 있어도 안 보고 싶게 만드는 감정도 있습니다. 별 생각이 없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옆에 고릴라가 앉아도 모르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전공을 공부하러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걸러내고 다른 것에 집중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저는 전공 공부가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은 실수와 좌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

운 문제와 씨름할 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때 저의 부족함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풀고 놀라운 성취를 이뤄도 그 상황에서 새로운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시작한 공부가 어느 순간 좋은 성적과 인정을 받기 위한 공부가 되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정당화할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커집니다. 호기심과 놀라움 대신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대충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A Priori

몇 시간의 노력에도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막혔을 때, 암기조차 안 될 때, 코딩한 프로그램의 오류를 못 찾을 때, 시험은 내일 아침, 제출 기한은 오늘 밤인 상황에서 수학계 시판에 들어가면 포기를 선언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수업을 19, 20학점씩 들으면서 인턴이나 조교일을 병행했고, 수업과 과제가 많은 만큼 위의 상황을 한 학기에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더는 발버둥칠 힘조차 없는 두렵고 외로운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큰 기대나 확신으로 기도하진 못했고, "시간도 얼마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응답하실까?" 하는 의문 가운데 속는 셈 치고 해본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A Posteriori

놀라운 것은 기도한 후의 변화입니다. 필기 구석에 있었던 정리의 내용이 떠올랐고, 잘 작동한다고 생각했던 함수의 오류가 보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기도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변화시킵니다. 첫 증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곁에서 응답해주시고 계시지만, 나의 감각, 감정, 생각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둠과, 괴롭고, 막막

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둠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언제나 상상하지 못한 선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제 곁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놀랍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단 기도를 하면 기도의 결과로서 믿음이 증명되고 깊어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렵고 힘들었던 전공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놀이로 바뀝니다. 재미있지만 해도 좋은데,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할 때보다 내용도 더 쉽게 이해되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누릴 여유가 생기고, 문제도 잘 풀리고, 성적도 잘 나옵니다. 수업에서 1등을 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친구들의 인정도 뒤따라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6:25)

정리와 따름 정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은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진정한 자유와 의미와 목적과 활력을 찾게 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힘과 이유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을 잘 곳도 필요합니다. 성취와 인정과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따름 정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면 어떤 경이로운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크고 놀라운 뜻을 금급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정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이지석(수리과학부 21)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후기

기세바세 추천사

살롬!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생 김선우 형제입니다. 지난 봄학기에 수강한 바이블칼리지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기세바세)” 과목을 서기연 형제자매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사고하고 반응하는 체계를 형성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각 분야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변호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창조 / 영적 세계 / 결혼과 가정 등 기독교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반발과 공격이 많아지고 있으며, 복음을 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각 영역에서 진리에 순종하며,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기세바세 과목은 세계관의 중요성을 처음 인식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세계관 개념에 대한 소개에 이어 신 존재, 진리, 절대적 도덕률, 생명의 근원, 고통과 행복, 정치, 경제의 주요 주제들에 걸쳐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하고, 다른 세계관 - 포스트모던, 인본주의, 뉴에이지, 유교, 마르크스, 이슬람의 관점을 함께 비교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됩니다. 주차마다 대표적인 사상가와 저작물을 소개해 주어, 관심 있는 주제는 더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계관이 방대한 주제인 만큼 열번 남짓의 강의로 충

분히 공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세바세 과목을 통해 공부를 시작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동기와 기초적인 이해도가 생긴 것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강사 류현모 교수님께서서는 차대 분자유전학교실 명예교수님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과목과 동명의 책을 비롯해) 여러 책을 저술, 번역하시고, CGNTV와 한동대 등에서 강의하신 경험이 많으십니다. 40대 중반에 주님을 영접하셨으나, 교회와 가정 외에서는 삶의 변화가 없음을 깨닫던 때에 친구의 소개로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책을 읽고 번역하면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후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공계 연구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자이신 교수님께 이러한 내용을 듣고 수업 전후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뜻깊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에서 교양이 아닌 순종할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새로운 학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갈급함에 기세바세 과목이 유익한 안내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우(전기정보공학부 19)

선교단체 수련회 후기

사랑에서 세상으로! 여름수련회에서 배운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



여름수련회가 끝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수련회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수련회는 6/24~28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EXPLO 7424인데요, 1974년도에 일어났던 대규모 부흥 집회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자는 뜻입니다. 특별한 수련회인 만큼 함께 가자고 선후배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50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름수련회의 꽃은 집회가 아닐까요? 평창의 휘닉스파크 언덕에서 캠퍼스별로 돛자리를 깔고 앉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넓디 넓은 언덕이 전국의

그리스도인 학생들로 꽉 찬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듣기도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찬양 집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변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맘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찬양 가사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등 가사를 고백하면서 어느 시간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집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만 집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종강 직후여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었습니다. 첫째 날 말씀 주제는 야곱 이야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묵상하지 못했던 야곱의 절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기에 야곱은 사기꾼,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피로의 극에 달할 그때 주님은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의 지친 모습이 현대인들, 그리고 저의 삶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도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서 역사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불안감을 감사와 기대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 부스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도 열렸습니다. CCC에 들어오기 전까지 선교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부스를 체험하며 전도되지 않은 나라들의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겼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경험을 꼭 누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 5일간 일정을 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 집중하면 분명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유진솔(CCC, 중어중문학과 21)

천국의 기쁨을 엿본 순간



이번 UBF 수련회는 7월 27~30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UBF는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동아리인데요. 동아리의 성격에 맞게 이번 수련회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보다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룹별 성경공부를 진행한 후, 성경공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었는데요. 첫날

부터 셋째날까지 각각 창작 무용, 연극, 저학번 CCM 밴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는 요나서와 돌아온 둘째 아들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있던 연극 공연의 경우, 이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뮤지컬 '아바'를 재구성한 연극으로, 요나서와 돌아온 둘째 아들 말씀을 적절하게 섞은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자체로만 접할 때와 달리, 연극을 통해 각 장면과 대사를 눈으로 보니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과거에는 요나를 보며, 뭐 저런 선지자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이번 수양회에서는 요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요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를 성장시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조차 끝까지 기다리고, 모든 걸 잃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역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수련회의 말씀과 여러 프로그램들은 바쁜 일상 생활과 여러 섬김의 자리로 인해, 지쳐있던 학생 리더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는 지난 3~4월에 처음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며, 기독교를 접한 학생들도 참석하였는데요. 그 친구들 역시,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쓰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학번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수련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수련회장으로 가는 길에도 약간 걱정을 했는데, 함께 그룹 성경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고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고,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공부를 하고, 예배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던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표진주(UBF, 과학교육과 석사과정)

그들 기독교콘서트 후기

2024년 7월 13일, 이승렬 <한국근대교양의 형성과 기독교>

한국 근대 초창기 개신교는 어떻게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두 질문은 사실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 현재 한국 교회의 재부흥의 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 선교센터 그뜰에서 열린 제4회 기독교콘서트 <한국 근대교양의 형성과 기독교>에 참석했다.

강연자 이승렬 교수님께서 역사학자로서 연구에서 종교적 관점이 개입되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왔다고 하셨지만 10년을 준비한 저서 『근대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2021)을 쓰면서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해온 막대한 역할을 재차 확인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신학이 아닌 이상, 인문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인간 활동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은 신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다. 여러 생각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국 근대 초창기를 살아간 기독교인들의 역동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계적인 표현이 체념 어린 개념이 아니라 실재하는 소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역사를 주

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강의를 통해 근대 초창기 한국 개신교의 핵심적인 성장 맥락 배우고 흥미로운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었다. 고종은 천주교를 박해했던 것과는 달리 개신교에게는 교회 부동산 매입 허가와 같은 보이지 않는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사들과 조선인 신도들은 적극적인 포교와 사회활동을 벌였다. 익히 알고 있듯 3·1운동은 기독교가 한국문화와 정신사의 주류에 성공적으로 편입했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의를 들으며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들이 성장한 곳과 사건들이 모색된 배경이 교회였음을 배웠다. 1890-1900년대 상동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이회영, 이승만, 김구 등의 모습이라든가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신민회와 헤이그 밀사가 조직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당시 교회와 청년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한국 근대 초창기 교회는 서구문명-조선왕조-시민사회-민족운동을 연결한 네트워크 거점이었으며 소망과 열심을 품은 청년이라면 그곳에 모였다. 식민지화의 위기와 근대화의 혼란 못지않게 어렵고 절박한 지금 여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다시 사랑과 소망의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욱희(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서기연 저학번 엠티

감사 그리고 감사

저는 서울대 안의 다양한 기독교인들과 교류하고 싶어 준비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팀으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 과정 속에서 모든 감사를 주셨습니다. 저학번 엠티에서는 모두가 함께 재밌게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기연 저학번 엠티는 서기연에 속한 우리가 하나 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순탄했습니다. 해야 할 프로그램, 이동, 예배까지 걸림돌 없이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교

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숙박하기로 하였고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아이스브레이킹, 베이킹 클래스까지 서울대학교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즐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학번 엠티가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이 실행으로 옮기며 다양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교회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행사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안전 문제 때문에 숙박을 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 흔쾌히 숙박까지 허용해주셔서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 청년 사역에 대한 큰 열의를 갖고 있고 목사님께서 교회와 가장 가까운 대학인 서울대 학생들이 요청해왔는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며 허락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이킹 클래스 장소를 대여할 때도 많은 인원수로 장소 대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 근처의 좋은 장소를 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팀으로 섬기며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고 엠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섬겼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난관을 거친 서기연 저학번 엠티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 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선교단체, 다양한 단대기연을 섬기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여러 지체들을 만나 서로 교류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22학년부터 24학년까지 함께 모여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남명현 전 서기연 대표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한 준비팀도 아니었으며 준비하는 과정과 엠티 속에서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라든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섬겨준 준비팀에게도 고마움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건호(산림과학부 24)



서기연 홈커밍데이



지난 9월 7일 토요일, 26동 및 학생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서기연 졸업생 홈커밍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신앙오티에 함께 참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동문 중심의 독자적인 모임으로 꾸렸습니다. 20여 명의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찬양을 부르고, 농업생명과학대학 94학번 동문이신 대학총교회 임우열 목사님께 요한복음 21장 20-22절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대답하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시며 온전히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못한 모습마저 귀하게 사용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이다은 대표가 캠퍼스 사역 현황과 기도제목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아마 많은 선배들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잠깐이나마 마음을 모아 학교를 위해 중보하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두 분의 간증에서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

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장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 이후 조별로 식사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모든 분에게 즐겁고 따뜻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체계가 부족하긴 해도, 서기연 졸업생 네트워크의 목적과 의미는 분명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첫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신앙을 가진 동문으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감각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대보다 사람이

적거나 관계가 느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4년의 시작과 동시에 캠퍼스를 떠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가는 경험이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으로 헌신해주신 스태프, 흔쾌히 도움 주신 찬양팀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서기연 재학생을 비롯하여 캠퍼스를 섬기며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모임을 기대해주세요~

최하영(언어학과 석사수료)

종강예배



광고 시간



설교-양명환 목사



예배 준비-SFC



축도 시간



즐거운 식교제 시간-인기연



즐거운 식교제 시간-농기연



즐거운 식교제 시간-공기연_첨단융합학부



친양팀 사진



찬양의 시간



합심기도의 시간 1



합심기도의 시간 2



축복의 시간 - 새내기

대학촌선교센터 '그들' 소개

'그들' 안에서 쉬었다 가세요

평일 오후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신가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나눔 공간을 찾으시나요? 대학촌선교센터 '그들'은 아는 사람은 아는 기독교인의 쉼터·모임터입니다. 평화로운 대학동 풍경과 하늘이 보이는 이곳은 책 읽기, 세미나, 소모임, 과제 등을 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개별 테이블과 좌석 외에도 스크린과 보드판이 있는 세미나실, 소규모의 찬양모임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커피와 차, 간식거리들도 제공됩니다. 대학동에 잠시 들렀는데 커피값이 아깝게 느껴지는 날, 찬양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은 날, 학교 밖에서 나눔을 하고 싶은 날이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그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들 인스타: @dhcgd_net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08, 4층
(서울대벤처타운역 2번출구 도보 5분)

▶운영시간
월화목 15:30-21:30
수금 15:30-19:00
주말 14:00 - 18:00

▶예약 안내
전화 예약 010-9265-3627
인스타 @DM dhcgd_net
음악실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후 사용 가능

서옥희(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대학촌교회 청년부 소개

저는 2015년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대학촌교회 청년부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석 후 10년이 흐른 지금, 저희 공동체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느낀 대학촌교회 청년부의 모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저희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

저보다 먼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대학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여러 교회를 방문해본 뒤에 등록할 교회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촌교회를 처음 방문한 날, 깊은 환대와 관심, 애정을 느꼈고 다른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날 바로 예배 후 모임까지 참여하고 등록했습니다. 그 후 10년간 밝은 청년부는 한결같이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합니다.

2. 사랑받는 청년부

이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이 청년들을 정말 아껴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늘 맛있고 건강한 밥, 과일,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교회의 친구들과 및 어른들과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을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초교파 교회이기 때문에 교역자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큰 곳임에도, 때에 맞게 교역자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언제나 영적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3. 다양한 모습을 받아주는 청년부

대학촌교회 청년부는 이제 막 가족의 품을 벗어난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고민과 삶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의 내용, 교회의 모습, 크리스천의 삶 등과 관련하여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숨기게 되는 생각도 나누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를 섬겨주신 교역자 분들도 청년들의 이러한 상황과 생각을 재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보듬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덕분에, 여러모로 흔들리는 20대 시절에 아주 앞드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신앙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부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4. 다양한 신앙활동을 하는 청년부

대학촌교회 청년부 구성원들은 나이는 비슷하지만 상황도, 성격도, 관심사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하

나눔과 이웃을 섬깁니다. 학구적으로 성경이나 신앙을 이해하고 싶다면 목사님과 함께 성경통독 모임을 하거나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싶을 땐, 예배 후 조별 활동이나 명절 모임, 엠티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에 소속되어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로 예배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교육 봉사나 동네 청소, 노숙인 봉사 등의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부 목사님이 서울대 내 선교활동을 야심차게 계획 중입니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 특성상, 해마다 입학, 졸업, 유학, 취업 등으로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이 변하더라도, 대학촌교회 청년부는 늘 사랑받아왔고, 받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학촌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서울대학교에 보내셨구나." 이 곳에서 하나님께 사랑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20대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얻은 생명과 사랑이 오늘 이 글을 읽는 어떤 청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세희(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졸업)